



④ 유무선통합 단말 동향

# 삼성·노키아·모토 'UMA' 단말 공급

내년 초까지 6사 합류 전망 ... 업계 "가격 메리트" 요구

현재 UMA 단말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노키아·모토로라 등 3사 뿐이다.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체간 신경전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항상 벌어지는 일로, 사업자측은 단말기 선출시를 요구하고, 단말 제조사는 서비스 시작을 강요하는 불협화음 말이다. 이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6개 정도 업체가 UMA 단말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FMC 단말기가 중저가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사용자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이다.

글 | 김중율 기자(모바일타임스)

## 삼성전자

삼성전자 차세대 유무선 통합 기술인 UMA 휴대 폰(모델명: SGH-P200)을 유럽시장에 지난 7월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북미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인 'CTIA 2006'에서 유선과 무선망을 오가며 끊김없이 통화할 수 있는 UMA폰을



처음으로 선 보이며 업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유럽 시장에 UMA폰을 출시함으로써 차세대 유무선 통합 휴대폰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3분기에는 미주형 UMA폰(T709)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UMA폰(P200)은 GSM/GPRS/EDGE와 같은 이동통신망과 무선랜망(WiFi)간에 자유로운 핸드오버로 끊김 없이 통화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핫 스팟 지역에서만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무선랜 폰에 비해 이동성이 훨씬 뛰어나다.

예를 들어 가정, 학교 등 핫스팟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무선랜을 통해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통신이나 인터넷전화(VoIP)를 이용할 수 있고, 무선랜이 안 되는 장소에서는 이동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세련된 슬라이드 디자인에 130만화소 카메라, 캠코더, 멀티미디어메시징시스템(MMS), MP3P, 파일뷰어 등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 모토로라



모토로라는 영국 BT가 제공하는 FMC 서비스 'BT Fusion'에 단말기를 공급했다. BT는 모토로라가 공급한 'V560' 'RAZR V3b'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것.

모토로라는 현재 UMA 단말기 3개 기종, 무선랜 탑재 단말기 2개 기종을 공급하고 있다.

모토로라의 UMA 단말기는 리눅스를 실장했다. 리눅스와 자바를 기반으로 표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것으로 단말기를 새로 개발할 때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

### LG전자

UMA 단말은 아니지만 유무선 통합 서비스 대응 단말기로 LG전자가 출시한 기본존폰도 있다. 1차 제품 LG-LF1200에 최근 스노우 화이트 컬러의 LG-LF1300를 출시했다.

기본존폰 II는 16mm대 슬림 슬라이드 컨셉을 유지하면서 기존 모델의 블랙 컬러와 달리 시원한 느낌의

스노우 화이트 컬러를 적용했다.

또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단말기간 데이터 송수신, 대전게임, 모바일 프린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끼리 최대 100m 내에서 위키토키 기능까지 지원하는 등 한층 안정화된 블루투스 관련 기능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외장메모리(MicroSD)를 지원해 MP3P 및 카메라 사용시 저장용량 확장이 쉽고, 강력한 멀티태스킹, 모바일 बैं킹, TV 리모컨, 지하철 노선도 등 다양한 부가기능들을 다수 갖췄다.

### 노키아



노키아도 UMA를 지원하는 GSM 단말기 '노키아6136'을 발표했다. 이는 UMA 지원 노키아의 두 번째 제품이다. 노키아는 향후에도 UMA 단말기를 비중 있게 출시한다는 방침. 노키아는 지난 8월 무선랜을 결합시킨 UMA의 실증 실험을 핀란드에서 개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실험에는 노키아의 새로운 휴대폰 '노키아6136'을 이용한다. 2개월 정도 실험은 계속될 예정이다. [K]